

# 전국 전셋값 3주 연속 '하락폭'

### 한국감정원, 0.05% 하락... 경기에 입주물량 크게 몰려·내년 하락세 더욱 가속화 될 듯

전국 전셋값이 5년여만에 하락 전환한데 이어 3주 연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미국 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전셋값은 0.05% 하락했다.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두배 이상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부터 보합세를 보이다 그달말께 하락 전환했다. 이같은 하락세는 약 5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전국 평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데 이어 이달 초에는 견고할 것 같았던 수도권 전세가격마저 하락 전환했다. 이후 매주 전셋값 하락세는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번주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커져 0.05% 떨어졌다.

이는 경기에 입주물량이 크게 몰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경기지역에 2만4821가구 신규 입주물량이 공급됐다. 전월(1만2713가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달 기준 전국에서 두번째로 물량이 많은 인천(6707가구)와 비교해도 4배에 달한다.

입주물량 증가 여파로 이번주 경기지역 전셋값은 0.10% 하락했다.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두배 넘게 커졌다. 반면 인천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된 0.0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0.03%)은 여전히 상승세다. 하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인접한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전주(0.03%)보다 상승세가 축소됐다.

서울 강북권(0.01%)은 역세권 저주근접 수요로 종로구와 동대문구에서 상승한 반면 인근 택지지구인 갈매지구와 다산신도시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노원구에서는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0.05%)은 학군수요가 꾸준한 강남구와 양천구에서는 상승한 반면

구로구와 관악구는 보합, 강동구는 하락했다.

지방(-0.05%) 역시 하락폭이 커졌다. 부산은 신규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신규주택이 공급되면서 하락 전환했다. 강원은 전세매물 누적 여파로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세종(0.20%), 광주(0.05%), 전남(0.04%) 등은 상승한 반면 대구와 충북은 보합했다. 경남(-0.24%), 충남(-0.18%), 울산(-0.12%) 등은 하락했다.

내년에는 전셋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입주물량이 더 쏟아지는데다,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4만여가구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0년 이후 입주물량을 집계한 이래 최다치다. 전국 아파트 재고 물량 대비 4.50%에 해당된다.

경기에서는 입주물량이 특히 몰리는 화성시와 김포시, 시흥시 등 외곽지역에서 전셋값 약세가 예상된다. 지방에

서는 대구와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심지어 세종은 재고 아파트 대비 18%에 해당하는 1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충북은 재고아파트의 7.44%에 달하는 2만2488가구가 입주한다. 이 비율은 경남 6.39%, 경기 6.22%, 강원 6.04% 순이다. 이처럼 재고아파트 대비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과 충청, 경상권역은 역세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만큼 국내에서도 금리를 한차례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했다. 역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집주인들의 월세전환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심교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부동산 및 대출규제 적용 등으로 내년 아파트 시장 전셋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하락세에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 탄소융합기술원, 우수 창업기업에 해외 진출 기회 제공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7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농환경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심천 벤처캐피탈 투자 상담과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은 올해 자금투자연계 경진대회에서 투자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농환경과 ㈜노텍바이오, 솔라시도코리아(주)와 기술창업스카우터로 추천된 ㈜메디클론과 ㈜엘과워를 포함한 6개 기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관사인 중국 투자사인 백강투자홀딩스(유)와 국내 액셀러레이터인 (주)비스마트가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중국 심천 현지에서 투자 및 해외 벤처캐피탈 리스트와의 투자 상담회도 진행했다. 특히 참가 기업들은 이 자리를 통해 자사의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 자사 브랜드를 알렸다.

이와함께 기술원은 백강투자홀딩스(유)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 투자 연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민국 백강투자홀딩스(유) 대표는 "한국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을 중국과트너나 업계전문가, 투자자들과의 전문적인 합자가 이뤄지도록 실무아이템들을 전시하고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투자, 마케팅, 파트너 매칭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 유망 기술 기업에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후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베트남, 일본 등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목표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을 확장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대출도 양극화'... 은행들, 고신용자 대출만 늘려

은행 신용대출 문턱은 고신용자에게는 낮지만, 중·저신용자에게는 높기만 했다.

최근 2년간 은행들이 고신용자에게 내준 가계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오히려 감소해 양극화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120조9000억원 가운데 고신용자(1~3등급) 비중은 56.4%로 11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신용자(4~6등급)와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비중이 각각 31.7%와 11.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특히 고신용자 비중은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었다. 지난 2015년 이후 고신용자 대출은 8.7%p 확대됐다.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6.0%p, 2.7%p씩 줄어 들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위험 부담이 적은 고신용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내 준 것이다.

중·저신용자들은 은행의 외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9월중 은행의 중신용자 대출금리는 4.6~7.0% 수준이 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13.4~22.5%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신용자는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제2금융권에서조차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2년간 0.3%p 감소한 수준에 그쳤으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5.4%나 줄어들었다.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는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뉴시스

## 효자동 신청사에서 전북경제 새로운 미래 설계

### 전주상공회의소, 18일부터 본격 업무 개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40여년간의 전통 시대를 마감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효자동)에 새롭게 동지를 들고 전북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전주상의 신청사는 대지면적 2,574.30㎡에 연면적 2만13,393.27㎡,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오는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1935년 설립되어 지난 1976년 전동에 터를 잡은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시절 경제개발과 위생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격동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상공인의 권익증진,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등 지역경제의 뿌리를 꽃피워왔다.

새롭게 건립된 신청사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각종 편의시설 확

충으로 기업들의 비즈니스 지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대표 경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상공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인접해 있어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청사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집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북일자리지원센터,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환경보존협회 등 각종 경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은행, 증권)이 입주,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상공인의 전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전북



전주상공회의소가 40여년간의 전통 시대를 마감하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효자동)에 새롭게 동지를 들고 전북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상공인들과 함께했던 42년간의 전통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효자동 시대를 앞둔데 있어 살레인과 아쉬움이 교차한다"며, "전주상공회의소 신

청사가 전북경제 발전의 심장이 되고 전라북도 상공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 전북은행-임신평국원,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맞춘

윤난슬 기자 =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3일 도내 기업 중 최초로 국립임신평국원과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국립묘지를 호국의 성지로 가꾸기 위함이다.

전북은행은 협약에 따라 국립임신평국원 내 6·25참전 군인묘역 총 1549기를 결연 묘역으로 정하고,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비석 닦기, 잡

초 제거, 묘소 앞 태극기 꽂기, 헌화운동 등 현충선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병용 전북은행 부행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임신평국원 묘역 관리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묘역을 찾아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